

■ 제 목 : 억새꽃과 삼나무 숲이 아름다운 도로 【비자림로】



■ 위 치(도로명)

- 제주도 제주시 봉개동 ~ 북제주군 평대리(지방도 1112호선)

■ 특 징

- 입구에서부터 도열하듯 쪽쪽 뺀 울창한 삼나무 숲과 이를 에워싸듯 은빛 물결 출렁이는 억새밭이 조화를 이루는 ‘억새꽃과 삼나무 숲이 아름다운 도로’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숲 도로로서 태고적 자연이 잘 보존되어있음
- 외국의 숲 속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음
- 차량이 많지 않으므로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며, 영화 ‘단적비연수’의 배경지로도 유명
- 미관성 우수

## ■ 주변 관광지

### 비 자 립



예로부터 비자나무는 재질이 좋아 고급 가구나 바둑판 재료 등에 널리 이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인 비자는 구충제로도 쓰였다고 한다.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된 비자림은 300~800년생 비자나무 200여 그루가 밀집되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비자나무 숲속의 삼림욕은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피로회복과 인체리듬을 되찾는 자연 건강 휴양 효과가 있다고 하며, 이곳은 청소년 수련소와 야영장 시설이 잘 되어 있어 단체 연수나 교육, 가족 단위 여행에도 제격이다.

### 제주 미니 미니 랜드



국내 최초의 테마형 어드벤처 제주 미니 미니 랜드. 이곳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미국, 남미대륙까지 세계의 주요 볼거리를 실물과 똑같은 모양으로 꾸며 놓았다. 전 세계 볼거리를 한자리에 모아놓은 지구촌 미니어처의 집합체로 제주의 기존 관광지들과는 차별화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위치 또한 제주도를 대표하는 관광코스인 만장굴과 비자림, 산굼부리, 명도암 관광목장 등과 연결되어 있어 색다른 관광을 즐길 수 있다.

### 산굼부리 분화구



이곳은 영화 '연풍연가'에서 남녀 주인공이 나란히 걷던 곳이다. 산굼부리는 천연기념물 제 263호로 둘레 2km가 넘는 거대한 화구이다. 또한 평지 분화구로서 난대성, 온대성, 고산식물 등 400여종의 식물이 자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내부 면적 30만 평방미터에 내부 밑 둘레 7백 56미터, 외부둘레 2천 70미터, 거의 수직을 이룬 높이가 130여 미터로 한라산 분화구보다 조금 더 크고 깊다.

■ 제 목 : 산과 물이 어우러진 호반 속의 도로 【용담대교】



■ 위 치(도로명)

- 경기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 신원리(국도 6호선)

■ 특 징

- 물 위를 달리는 듯한 기분을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호반 속의 이 도로는 물 안개라도 피어오르는 날이면 더욱 낭만적인 드라이브 코스임
- 이곳은 상쾌한 드라이브로 찾는 이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으며, 매 계절마다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여 사시사철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음
- 상수원 보호를 위해 교량 건설시 국내 최초로 무도장 공법을 시도한 친환경 도로이며, 교량 아래 호반의 경치를 관망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도로보다 높게 만들어졌음
- 미관성 우수



## ■ 주변 관광지

### 다산 정약용 묘



두물머리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져 커다란 물줄기를 이룬 곳이 팔당호이다. 그 물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조선시대의 실학자이며, 선구자였던 다산 선생의 생가와 묘가 있다. 묘 앞에는 사석과 비석이 서 있으며, 묘역 주변은 공원처럼 잘 다듬어져 있어 그의 드높은 정신을 기리는 참배객들과 호수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 청평유원지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룬 청평호를 중심으로 조성된 청평유원지는 서울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이라 당일 코스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호수 북쪽의 페리 선착장에서는 유람선이 운항되는데 북한강을 거슬러 오르는 뱃길의 운치가 매력적이다. 이외에도 수상스키를 비롯한 각종 레포츠 및 놀이를 즐길 수 있고 숙박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사계절 휴양지로도 유명하다.

■ 제 목 : 푸른 바다 위 구름다리 【서해대교】



■ 위 치(도로명)

- 경기 평택 ~ 충남 당진(고속국도 15호선)

■ 특 징

- 아산만의 넓은 바다 위에 구름다리처럼 웅장하게 펼쳐진 서해대교는 노을과 조화를 이루어 멋들어진 경관을 연출
- 동북아 물류 수송의 중심인 서해안의 관문으로, 아산만을 가로질러 경기도와 충청도를 연결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및 서울~목포 간 주행 시간을 단축
- 사장교와 FCM교 및 PSM교의 복합 형식으로 지어졌으며, 주탑의 높이가 무려 60층 건물 높이인 182m에 달하고 총 연장 7,310m, 폭 31.4m의 규모를 자랑
- 국내 자본과 기술로 건설됨으로서 국내 토목기술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국내 최초 교량유지관리시스템(B.M.S)을 도입
- 예술성 및 기능성 우수

## ■ 주변 관광지

### 의암리 민속마을



의암리 민속마을은 아산시와 천안시 경계인 광덕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가구 수는 86호이며 대부분이 초가지붕의 정겨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마을 어귀의 장승을 비롯해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디딜방아, 연자방아, 물레방아 등이 보존되어 있으며, 이밖에도 석조약사여래입상 등 많은 민속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다.

### 온양 민속 박물관



충남 아산시 권곡동에 위치한 온양민속박물관은 2만2천평의 대지 위에 건립된 국내 최대의 민속박물관이다. 우리의 얼과 사상을 담은 역사 깊은 곳으로 옛 선조들의 구체적 생활양식과 민속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전시하여 후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된 뜻 깊은 곳이다.

■ 제 목 : 내장산 오색 단풍길



■ 위 치(도로명)

- 전북 정읍시(국지도 49호선)

■ 특 징

- 내장산은 ‘호남의 금강산’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명산으로서 해마다 가을이면 온 산야가 붉게 타오르며, 전국에서 손꼽히는 단풍 관광 일번지로 유명함
- 국지도 49호선에 위치한 ‘내장산 오색 단풍길’은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 도로에 유난히 작고 붉은 내장산 단풍나무를 꾸준히 심고 가꾸어 오늘날의 오색 단풍길로 조성하였음
- 내장사 입구에 위치한 아치형의 단풍터널은 길이 200m, 폭 6m의 길에 단풍나무가 5m 간격으로 심어져 있어 피카소의 그림보다도 화려한 색의 향연을 제공
- 미관성 우수



## ■ 주변 관광지

### 정읍사 공원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장터로 행상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지아비의 안위를 걱정하는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노래한 가요, 정읍사. 정읍사 공원에는 지아비를 기다리다 망부석이 되었다는 정읍사 여인의 망부상과 노래비를 비롯해 예술회관, 국악원,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찾는 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내장사



백제 무왕 37년(636년)에 영은조사가 창건한 내장사는 내장산 산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아늑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일주문 근처에 조성된 단풍터널은 1892년 내장사 스님들이 중생들로 하여금 백팔번뇌의 시름을 잊게 해주기 위해, 108그루의 단풍나무를 옮겨 심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돌기둥으로 세워진 대웅전과 은은하고 맑은 소리를 내는 동종도 꼭 둘러봐야 할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다.



■ 제 목 : 바다 위에 세운 건설 미학 【영종대교】



■ 위 치(도로명)

- 인천 서구 ~ 중구(고속국도 130호선)

■ 특 징

- 영종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이 자리잡은 영종도와 인천 장도를 잇는 영종도 유일의 연육교로서, 배가 없으면 꿈쩍도 할 수 없었던 영종도 사람들에게 물길을 열고 하늘 길을 열어 준 교량임
- 총 연장 4,420m에 달하는 영종대교는 도로와 철도가 동시에 통과하고, 교량 아래로 1만 톤급의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세계최초의 3차원 자정식(교량 스스로 무게를 지탱하는 방식) 현수교로서, 강풍과 지진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되었음
- 국내 토목건축물로서는 최초로 2002년 일본 최고권위의 다나카상을 수상
- 예술성 및 기능성 우수

## ■ 주변 관광지

### 영종대교 기념관



영종대교에 관한 역사와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국내 최초의 교량과학관이다. 영종대교를 지나게 되면 꼭 한번 들러 볼 만한 곳으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및 영종대교의 건설 과정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관람할 수 있고, 전세계 10대 교량의 특징과 건설 과정에 관한 영상 자료도 마련되어 있다. 영종대교를 드라이브하는 느낌을 체험할 수 있는 이색 코너와 서해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3층 옥외전망대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 을왕리 해수욕장



울창한 송림과 크고 작은 바위로 둘러싸인 을왕리 해수욕장은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 받는 영종도의 명소다. 일찍부터 해수욕장으로 개방되었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은 물론, 넓은 잔디밭과 다양한 놀이기구, 야영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무엇보다 해변을 온통 붉게 물들이는 낙조가 일품인 곳이다.

■ 제 목 :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도로 【중인문로】



■ 위 치(도로명)

- 제주 제주시 일도1동 ~ 건입동(시도중로 2류 1호선)

■ 특 징

- 산지천을 끼고 산지포구까지 이어지는 중인문로는 제주 최대의 상권이 형성된 문화의 거리와 접하고 있으며, 제주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로임
- 제주만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향토 수종이 즐비하고 산책로가 잘 닦여 있으며, 녹지 공간으로 조성된 보도에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주석을 가공하여 포장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서 손색이 없게 배려하였음
- 도심 속의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조성된 산지천의 돌다리 홍예교와 나무만으로 만들어진 산지교, 광제교가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며, 동문교에는 음악분수가 장관을 이루어 시민들에게 시원한 감흥을 선사함
- 친근성 우수



## ■ 주변 관광지

### 제주목 관아



조선시대 제주지방 통치의 중심지였던 제주목(濟州牧) 관아는 지금의 관덕정(觀德亭)을 포함하는 주변 일대에 분포해 있었으며, 이미 탐라국(耽羅國)시대부터 성주청(星主廳) 등 주요 관아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목 관아는 일제강점기 때 집중적으로 훼손(毀撤)되어 관덕정을 빼고는 그 흔적을 볼 수가 없었으나, 1991년부터 1998년까지 4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하여 제주목 관아지 일대가 국가사적(國家史蹟) 제380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 산지천



한강이 서울시민의 젖줄이라 한다면, 산지천은 제주시민의 젖줄이다. 산지천 하류에는 산지포구가 있으며, 이곳에서 고기 낚는 모습이 아름다워 산포조어(山浦釣魚)라 하여 영주10경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복원우수사례로 지정되기도 한 산지천에는 분수가 솟아 오르고 물고기가 찾아들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어엿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 탐 동



탐동은 야간데이트 코스로 유명하다. 찾아가면 언제나 반겨주는 어머니 품같이 편안한 바다가 펼쳐져 있고 탐동 방파제에 앉으면 밤공기에 바다 향내가 묻어나며, 꿈틀거리듯 칠썩되는 파도소리가 운치를 더한다. 밤바다에 떠 있는 고깃배들은 작은 불빛이 되어 하늘의 별빛처럼 총총거리며, 7~8월 탐동의 야외 해변공연장에서는 '한여름밤의 축제'를 비롯해 연일 축제가 펼쳐진다.



■ 제 목 :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길



■ 위 치(도로명)

- 충남 태안군 안면읍(군도 14호선)

■ 특 징

-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길'은 '안면송'이라고 불리는 곧고 푸른 소나무와 은빛 모래밭을 물으로 밀어 올리는 바다 사이에 한 줄 금을 그으며 뻗어 있음
- 2002년에 개최된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장의 주 진입도로 이용되기도 했던 이 도로는 자연산 대하의 주산지인 백사장 포구부터 곱고 단단한 모래가 사막처럼 광활하게 펼쳐진 삼봉해수욕장을 지나 갯바위와 자갈이 많아 아기자기한 방포해수욕장까지 연결됨
- 미관성 우수

## ■ 주변 관광지

### 꽃지 해수욕장



안면도 해수욕장 중에서 으뜸을 꼽으라면, 단연 꽃지해수욕장이다. 해변을 따라 해당화와 매화가 많아 ‘꽃지’라는 명칭을 얻은 이곳은 장장 5km에 걸친 은빛 모래밭과 넘실거리는 서해, 푸른 소나무 숲 등이 이롭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선보인다. 애뜻한 전설을 간직한 할미·할아버지 바위 뒤로 지는 해가 장관을 연출하는 이곳은 변산 채석장, 강화 석모도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일몰 명소로 손꼽힌다.

### 방포 해수욕장



안면도에서 최초로 개방된 방포 해수욕장은 길이 700m, 폭 200m 정도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심이 완만하고 주변에 많은 볼거리가 있어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곱고 깨끗한 모래로 이루어진 안면도의 다른 해수욕장과 달리 자갈과 바위가 많아 갯바위 낚시가 성하고,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적의 낚시 포인트로 꼽힌다. 젓개 포구와 가까워 가오리, 아나고, 우럭, 고등어 등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도 있다.

### 안면도 자연휴양림



안면도 자연휴양림은 국내 유일의 소나무 단순림으로서 수령 100년 내·외의 안면 소나무 천연림이 430ha에 집단적으로 울창하게 자라고 있다. 안면도 자연휴양림 내에는 야영장을 비롯하여, 전망대, 체력단력장, 수목원, 산림전시관 등의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있고 안면도 자연 휴양림을 중심으로 꽃지, 삼봉, 방포 해수욕장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 제 목 : 문화가 있는 벚꽃 길



■ 위 치(도로명)

- 전남 영암군 영암읍 ~ 학산면 독천리(지방도 819호선)

■ 특 징

- 지방도 819호선, 전남 영암군 영암읍부터 학산면 독천리까지 약 16km에 달하는 구간은 눈처럼 흩날리는 꽃비를 맞으며 달리는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함
- 30~40년은 족히 되었을 법한 아름답리 벚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어 해마다 4월이면 꽃구름을 방불케 하는 벚꽃이 장관을 이루며, 활짝 핀 벚꽃 그늘 아래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이곳은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전국적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음
- 미관성 우수



## ■ 주변 관광지

### 월출산



소백산맥 줄기가 바다를 향해 낮아지다가 평야 지대에 이르러 웅장하게 돌출된 국립공원 월출산은 영암을 대표하는 명소다. 산 전체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석 전시장'에 비유되기도 하고, 산세가 빼어나 '소금강'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아름답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서해 낙조와 달맞이는 황홀한 장면을 연출한다.

### 왕인박사 유적지



영암은 지금으로부터 1,600여년 전, 백제시대에 일본 응신 천왕의 초청으로 천자문, 논어, 도공, 직조공 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아스카 문화를 꽃피우게 한 백제 문화의 첨병, 왕인박사의 고향이다.

왕인박사의 업적과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조성된 이 유적지에서는 왕인 묘, 전시관, 왕인 석상, 왕인 문화의 거리, 왕인박사가 홀로 학문에 정진했던 책굴 등 많은 유적을 만나볼 수 있다..



■ 제 목 : 한강 위의 비상(飛上) 【방화대교】



■ 위 치(도로명)

-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 서울 강서구 방화동(고속국도 130호선)

■ 특 징

- 방화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이 21세기 동북아시아 허브 공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고속국도 130호선 구간 중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임
- 총 연장 2.6km로 한강 교량 중 가장 긴 교량이며, 국내최초로 장경간 아치 트러스 구조로 설계·시공되었음
- 아치는 전통 사찰과 기와집 처마의 부드러운 이미지가 도입되어 개화산 봉우리, 덕양산 봉우리에 이어 세 번째 봉우리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륙하려는 듯한 거대한 항공기를 연상시키는 기하학적인 형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함
- 예술성 및 기능성 우수

## ■ 주변 관광지

### 서오릉



사적 제198호인 서오릉은 조선 왕조의 다섯 능인 경릉, 창릉, 익릉, 명릉, 홍릉을 일컫는 말이다. 오릉 이외에도 명종의 첫째 아들 순회세자의 순창원과 영조 후궁 영빈 이씨의 수경원이 있으며, 숙종의 후궁인 장희빈의 대빈묘도 최근 이곳으로 이장되었다. 서울 시내와 가깝고 조경이 깔끔하여 산책이나 조깅 코스로 사랑받고 있다.

### 행주산성



행주산성은 토축산성으로서 둘레는 약 1,000m이며 1593년 권율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왜군을 크게 물리친 행주대첩 전적지로 유명한 곳이다.

부녀자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날라 명명된 행주대첩은 충무공의 한산대첩과 더불어 역사에 길이 빛날 전투이다. 1970년 권율 도원수의 사당인 충장사를 다시 짓고 정자와 문을 세워 경역을 규모 있게 조성하였다.

■ 제 목 : 지나치기에 가까운 장회재 구간



■ 위 치(도로명)

- 충북 단양군 단성면(국도 36호선)

■ 특 징

- 장회재 구간은 수려한 산세를 휘감으며 흐르는 남한강 상류의 푸른 물줄기를 따라 달리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도로임
- 단양8경 중에서도 손꼽히는 경관을 자랑하는 구담봉과 충주호 상류의 질푸른 물빛을 바라보며 낭만적인 기분을 만끽할 수 있으며, 장회나루에서 유람선을 이용하면 제비봉과 신선봉, 강선대, 금수산, 채운봉 등은 물론, 단양8경 중에서도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구담봉과 옥순봉을 둘러볼 수 있음
- 미관성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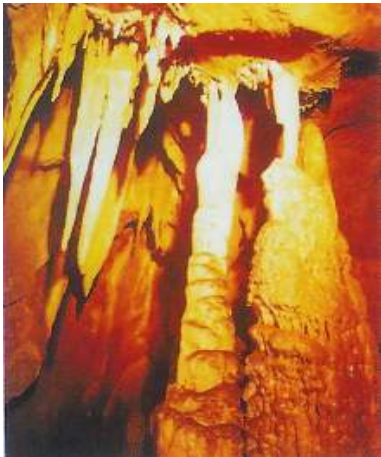
## ■ 주변 관광지

### 도담삼봉



남한강의 맑고 푸른 강물 위로 세 개의 바위가 솟아 있는 도담삼봉은 단양8경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기로 이름난 명소다. 높이 6m에 달하는 남봉을 중심으로 남봉과 마주 보고 있는 봉우리가 첩봉이며, 등을 돌린 듯한 봉우리가 처봉이다. 이 곳에는 아들을 얻기 위해 첩을 둔 남봉과 이를 원망하며 돌아앉은 처봉의 전설이 서려 있으며, 고려말 조선초의 학자인 정도전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도 전해오는 곳이다.

### 고수동굴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지정된 고수동굴은 총 길이 1,300m에 달하는 자연동굴이다. 동양최대의 석순인 황금주,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잠시 땅에 내려앉는 형상의 독수리 바위 등 기묘하고 아름다운 형상의 종유석과 석순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를 감상하다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의 흐름과 자연이 빚어 놓은 최고의 작품이라 할 만큼 아름답고 신비로운 광경에 새삼 감탄하게 된다.



■ 제 목 : 아름다운 샘골다리



■ 위 치(도로명)

- 전북 정읍시 시기동(시도)

■ 특 징

- 벚꽃축제, 단풍축제, 갑오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등 다양한 축제의 무대가 되는 '아름다운 샘골다리'는 정읍천에 세워진 작은다리로서 그리스 신전을 연상케 함
-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아름다운 교량의 모습과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정읍천의 풍경이 잘 어우러져 있으며, 정읍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외지의 관광객에게도 좋은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
- 특히, 봄철에는 정읍천변 도로에 피는 벚꽃이 구름 같은 터널을 이루며, 샘골 다리 주변에는 원추리, 붓꽃, 별개미취, 상록패랭이 등 갖가지 야생화가 철따라 피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
- 예술성 우수

## ■ 주변 관광지

### 황토현 전적지



동학농민혁명 당시, 1894년 5월(고종 11년)에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싸워 최초로 큰 승리를 거둔 곳이 바로 황토현 전적지다. 이곳에서의 승리는 동학농민혁명을 크게 확산시켰으며, 나아가 전주까지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갑오동학혁명 기념탑을 비롯해 전봉준 장군의 동상과 사당, 유품을 전시한 기념관, 전봉준 장군의 영정이 있는 강당, 광장 등이 자리잡고 있는 역사의 현장으로서, 1981년 사적 제295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 피향정



신라 정강왕 때 고운 최치원이 태산군수로 재직하면서 시작과 풍월을 즐기던 연못가에 세워진 정자다. 현재 보물 289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6·25사변 직후에는 잠시 면사무소로 이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곳에 있는 두 개의 연못에는 연꽃이 만발해 그윽한 연꽃향기가 이 일대에 가득 퍼지며, 해마다 8월에는 풍성한 연꽃축제가 벌어진다.

## ■ 제 목 : 바람과 계곡의 교차로



### ■ 위 치(도로명)

-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고속국도 102호선)

### ■ 특 징

- 주변의 아름다운 산을 벗삼아, 바람이 계곡을 타고 내리듯 매끄럽게 달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로 '바람과 계곡의 교차로'는 옛 가야의 역사를 지닌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칠원분기점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마산 외곽고속도로를 이어줌
- 대구에서 부산이나 진주로 향하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으며, 주위의 아름다운 산맥과 조화를 이룬 이 교차로 아래로 목가적인 풍경이 이어짐
- 운전자가 먼 거리에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트럼펫 형식의 입체 교차로로서 웅장함과 부드러움을 연출하는 토목구조물의 이미지를 전달함
- 예술성 및 기능성 우수



## ■ 주변 관광지

### 돌섬 해상유원지



유명한 가곡 '가고파'의 배경인 마산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돌섬은 옛날 가락국 왕의 충애를 받던 미희가 마산 앞바다로 홀연히 사라진 이후 섬이 돼지 누운 모습으로 변하여 그 때부터 돼지의 옛말 '돌'을 따서 돌섬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섬 전체가 울창한 수림으로 구성되어 삼림욕을 즐길 수 있고, 각종 위락 편의 시설이 고루 갖춰져 있는 해상공원이다.

### 마산부두



3.15 의거의 발상지인 마산시는 중심부에 무학산 대곡산, 팔룡산, 청량산 등의 구룡성 산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이 특이한 곳이다.

마산시는 조선 시대에 이르러 항구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해 오늘날까지도 항구도시로의 명성을 떨치고 있다. 마산부두에서 서남쪽 해안을 내려다보면 자연만과 크고 작은 섬들이 산재해 경치가 매우 수려하다.